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몽골



### Mongolia

2021년 4월 27일 | 조사역(G3) 이승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   |   |   |  |
|---|---|---|--|
| <b>면적</b><br>1,564천 km <sup>2</sup>  | <b>인구</b><br>3.355백만명<br>(2020기준)  | <b>정치체제</b><br>이원집정부제       | <b>대외정책</b><br>친서방<br>실리외교    |
| <b>GDP</b><br>133.85억 달러             | <b>1인당GDP</b><br>3,989.93 달러       | <b>통화단위</b><br>Tugrik(투그릭)  | <b>환율(U\$기준)</b><br>2,818.00  |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30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으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함.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몽골 GDP의 23.8%, 총수출 금액의 84%를 차지하여 몽골 경제를 이끌고 있음. 다만,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음.
-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 정책' 하에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 경제과학기술협정(1991), 문화협력협정(1991), 투자증진보호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약(1993), 세관협력협정(19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96),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 범죄인인도조약(2000), 형사사법공조조약(2000), 관광협정(2004), 사회보장협정(2007), 수형자이송조약(2008),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2010), 사증발급간소화협정(2012)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18    | 2019    | 2020    | 주요품목              |
|----|---------|---------|---------|-------------------|
| 수출 | 307,649 | 291,073 | 271,157 | 자동차, 기호식품, 건설광산기계 |
| 수입 | 26,905  | 32,596  | 20,535  | 의류, 기타금속광물, 동광    |

**해외직접투자현황(2020.12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719건, 499,629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경제성장률    | 1.2   | 5.3  | 7.2  | 5.2  | -5.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 4.3  | 6.8  | 7.3  | 3.7  |
| 재정수지/GDP | -15.3 | -3.8 | 3.0  | 0.8  | -9.7 |

자료: IMF, EIU

### 2017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수용 후, 2019년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지속

- 몽골은 2011~13년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 2014년부터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광물 수출 급감,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영국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몽골 정부의 분쟁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 광물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17년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3년 계획의 IMF EFF(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수용하였음.
- 몽골은 201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 자금 약 4억 4천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 일본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지원금에 더해 중국으로부터 약 2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제공받음.
- 구제금융 등 투입 및 IMF 체제 하의 긴축재정 실시 결과, 몽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7%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2018년에는 9년 만에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

### 2020년 몽골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3%의 마이너스 성장 추정

- 광산업과 대 중국 수출은 몽골 경제에서 높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광산업은 2020년 상반기 기준 몽골의 GDP 중 24%, 총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출액 중 약 73%가 중국으로의 수출임.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몽골의 주요 수출광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몽골 경제는 2020년 상반기 중 -9.7%의 역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3분기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광물 수요 급증과 금·구리 가격 상승, 몽골 광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회복이 이루어져 IMF는 몽골 경제가 2020년 전체로는 -5.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내경제

- 몽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를 시행, 외부와의 항공 노선 중단과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상반기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였음. 특히 주요 수출광물인 석탄과 구리의 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 30% 감소하면서 몽골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하반기 금과 구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이 기존의 최대 석탄 거래국이던 호주와의 정치적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몽골산 석탄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임.

### 2021년에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약 6.1%의 경제성장 전망

- 2021년 몽골 경제는 2020년의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임. 몽골의 2021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전망기관별 편차는 존재하나 대부분이 6~7%로 추정하고 있음(IMF 5.0, EIU 6.1%, IHS 6.7%). 주로 수출 부문과 몽골의 광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이러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 경제 회복세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2020년 연기되었던 광산 분야에 대한 투자 집행,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에 대한 자본 투자 등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몽골은 2020년 호주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규모의 야금용 석탄(점결탄)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이러한 수요는 중국의 호주에 대한 수입 규제와 관련해 2021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오유 톨고이 광산은 몽골 내 최대 규모의 광산으로 구리 3,700만 톤, 금 1,300만 톤, 은 7,600 톤 가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몽골 수출의 20~30%를 차지하는 수준임. 오유 톨고이 광산은 영국의 광산업체 리오 틴토사가 66%의 지분을, 몽골 정부의 대리인 격인 에레데네스 오유 톨고이사가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몽골 정부와 리오 틴토사는 개발과 관련해 세금, 프로젝트 자금 등을 놓고 분쟁 중에 있으나, 분쟁이 지속되어 생산이 지연될 경우 양측 모두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합의 가능성이 존재함.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5%대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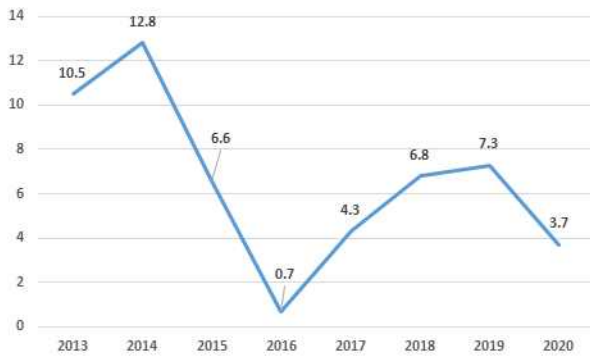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몽골 내 이동 제한, 집합 금지 등의 정책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몽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7.3%)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3.7%를 기록했음. 2021년에는 이처럼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이 작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몽골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되어 몽골 내수시장에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2021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는 몽골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8%보다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몽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확장적 통화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 따라서 몽골 중앙은행이 2021년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유지하다, 2021년 말부터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과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우려에 대응할 것으로 보임.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 5.5%(IMF), 5.2%(IHS), 5.8%(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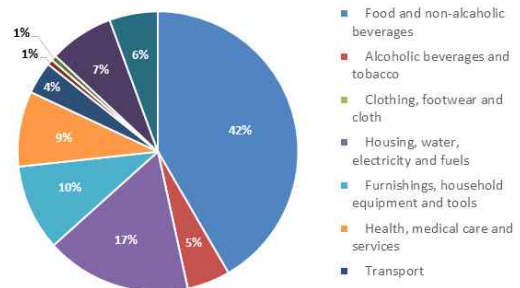
## 국내경제

- 몽골의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은 식음료가 약 47%, 주거와 전기, 난방 등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몽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이나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비중



출처: 몽골 통계청

##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 몽골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수용한 이듬해인 2018년에 9년 만의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시현하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듯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방역 문제에 대응코자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어 3년 만에 다시 GDP 대비 -9.7%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몽골 의회가 2021년 정부 예산을 세입 11조 7,000억 투그릭, 세출 13조 9,000억 투그릭, 재정수지 -2조 1,000억 투그릭(약 -740백만 달러)의 적자 재정으로 편성하면서 2021~22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 몽골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혜택이나 실업급여 등의 긴급 재정 지원을 서서히 줄여갈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소비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 중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요 증가가 이루어져 균형 재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경 상 수 지   | -700   | -1,155 | -1,903 | -2,162 | -433   |
| 경상수지/GDP  | -6.3   | -10.1  | -14.5  | -15.5  | -3.3   |
| 상 품 수 지   | 1,338  | 1,489  | 686    | 1,158  | 1,622  |
| 상 품 수 출   | 4,804  | 5,834  | 6,557  | 7,183  | 7,025  |
| 상 품 수 입   | 3,466  | 4,345  | 5,871  | 6,025  | 5,403  |
| 외 환 보 유 액 | 1,175  | 2,771  | 2,717  | 3,182  | 3,995  |
| 총 외 채 잔 액 | 25,740 | 28,773 | 29,377 | 29,581 | 30,373 |
| 총외채잔액/GDP | 230.7  | 251.8  | 223.6  | 211.3  | 231.2  |
| D. S. R.  | 30.2   | 25.2   | 32.5   | 20.4   | 48.0   |

자료: IMF, EIU

### 2014년 이래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0%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몽골은 2014년 이래 계속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2007년 이래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이는 열악한 수송 인프라로 인한 높은 광물 수출비용 발생에서 비롯되는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유출에 기인하는 소득수지 적자에 의한 것으로, 2020년에는 GDP 대비 -3.3%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 수출의 주력 운송수단인 철도 인프라 확장을 위해 2010년 철도 개발 3단계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진행 중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인접국들인 중국, 러시아와 몽골의 주요 광산을 잇는 '초원의 길' 계획과도 궤를 같이함. '초원의 길' 계획이 완성되면 몽골은 광물 수출에 들어가는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산업은 물론 몽골 내 제조업과 무역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중국으로의 주요 광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분야의 침체 상황에서 서비스 수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이며, 몽골의 광산업 활성화는 다국적 광산기업에 의한 수익 유출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악화를 의미하므로 경상수지 적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됨.

\*20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정치: EIU: -9.5%, IHS: -20.1%, Fitch Solutions: -27.1%

## 외채상환능력

### 2017년 이후 IMF 체제 아래에서 외환보유액 확충

- 몽골은 2017년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IMF의 EFF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부족했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보임. 2020년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인 2016년 외환보유액의 2배를 넘는 약 24억 달러이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5.3개월분으로 전년도의 약 3개월분에서 크게 증가함.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급감해 수치가 상승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몽골이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며 대외지급능력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월평균 수입액의 2.5~3개월치를 적정치로 봄.

### 2021년부터 거액의 대외채권 원금 상환 압박 가중

- 2020년 몽골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현재 몽골의 상환능력 대비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나타냄. 실제로 몽골 정부는 2021년 Mazaalai 채권(5억 달러 규모)과 신디케이트 론(2.5억 달러 규모)의 원금 상환을 앞두고 있음.
-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몽골 정부는 2020년 10월 6억 달러 규모의 Nomad 채권을 발행하면서 Mazaalai 채권을 대체함. Nomad 채권은 기존 Mazaalai 채권의 이자율 10.87%보다 낮은 5.13%의 이자율로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몽골은 2,600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전망이다.
- 이 외에도 몽골중앙은행은 2021년부터 4년간 14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2020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도 2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몽골 정부가 2024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목록

|   | 채권명          | 금액      | 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
| 1 | Mazaalai 채권  | 5억 달러   | 10.8%  | 2016년 | 2021.4  |
| 2 | 신디케이트 론      | 2.5억 달러 | 4.9%   | 2014년 | 2021.12 |
| 3 | MIK사 채권      | 3억 달러   | 9.75%  | 2019년 | 2022.1  |
| 4 | Chinggis 채권  | 10억 달러  | 5.125% | 2012년 | 2022.12 |
| 5 | Gereg 채권     | 8억 달러   | 5.6%   | 2017년 | 2023.5  |
| 6 | 개발은행 채권      | 5억 달러   | 7.25%  | 2018년 | 2023.10 |
| 7 | Samurai 채권   | 300억 엔  | 1.5%   | 2013년 | 2023.12 |
| 8 | Khuraldai 채권 | 6억 달러   | 8.7%   | 2017년 | 2024.3  |
| 9 | ER사 채권       | 4.4억 달러 | 9.25%  | 2019년 | 2024.4  |

출처: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몽골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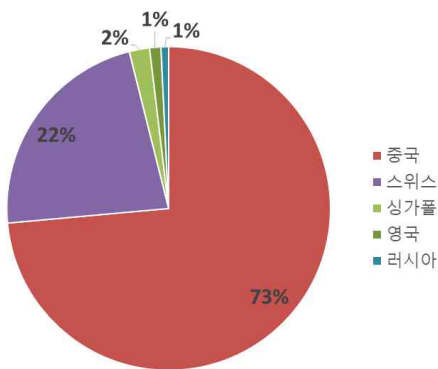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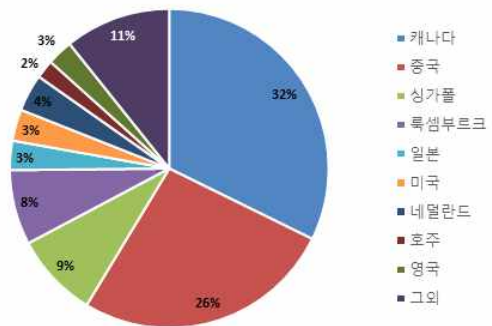
###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

- 몽골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2020년 기준 몽골 수출의 75%, 수입의 46%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09년까지 중국의 비중이 70%를 상회함. 이후 타 국가들이 활발히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0~19년 중의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약 26%를 차지하며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몽골 경제를 외적 변수에 취약하게 만들.
-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량과 투자가 급감하자 상반기 몽골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2020년 몽골의 국가별 수출비중



2010~19년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비중



출처: 몽골 통계청

### 광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필요

- 몽골은 과거 전통적인 유목국가로 2000년까지 농·목축업이 GDP의 약 25%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광업의 비중을 늘려나가 2019년에 이르러서는 광산업이 전체 GDP의 23.7%를 차지하는 광산업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탈바꿈함. 따라서 현재 몽골 경제는 원자재 국제 수요 및 가격 변화에 취약함.

2000~19년 몽골 산업구조 변동 추이 (GDP 대비 비중, %)

|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9년 |
|-------|-------|-------|-------|-------|-------|
| 농·목축업 | 27.4  | 19.8  | 11.6  | 13.3  | 10.7  |
| 광산업   | 11.3  | 21.0  | 22.4  | 17.6  | 23.7  |
| 제조업   | 9.1   | 7.7   | 8.6   | 9.1   | 11.0  |
| 건설업   | 2.6   | 3.0   | 2.9   | 4.7   | 4.3   |

출처: 몽골 통계청



## 구조적취약성

###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정책과 투자의 효율성 저해

-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PI)에 따르면 몽골의 투명성은 전체 180개국 중 111위이며, 이는 정치인, 공직자들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2013년 몽골의 최대 규모 광산인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과 관련한 뇌물 수수 사건이며, 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당시 광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가 무기한 연기되어 몽골 투그릭화의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음.
- 2010년대 이후 몽골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지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성장잠재력

### 광물자원 매장량 세계 10위의 자원부국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각각 세계 2위와 4위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와 석탄 외에도 약 80가지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최근 각광받는 희토류 역시 전 세계 매장량 중 약 15%가 몽골에 매장되어 있음. 현재 몽골의 수출 중 약 80%를 광물자원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하자원 수출 및 개발 관련 외국 자본 유입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보임.

몽골의 주요 광물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 연도별 생산량 |        |        |        | 비고           |
|----------|---------|--------|--------|--------|--------------|
|          | 2016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석탄(천톤)   | 35,522  | 48,145 | 51,402 | 55,799 | 매장량 세계 4위    |
| 원유(천배럴)  | 8,250   | 7,624  | 6,388  | 6,876  | 매장량 45억 배럴   |
| 구리(천톤)   | 1,445   | 1,317  | 1,310  | 1,262  | 매장량 세계 2위    |
| 몰리브덴(천톤) | 5,174   | 5,760  | 5,486  | 5,302  | 생산 세계 9위     |
| 금(톤)     | 18.4    | 19.8   | 20.7   | 16.3   | 매장량 3,000톤   |
| 철광석(천톤)  | 4,936   | 7,694  | 6,225  | 8,572  | 추정 매장량 15억 톤 |









출처: 몽골 통계청

## 성장잠재력

###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수립으로 다방면에 걸친 국가 발전 도모

- 2020년 몽골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사회·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한 장기 개발계획인 '비전 2050'을 발표함. 비전 2050은 과거 실행되었던 정책과 개발계획들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4년 단위로 단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0년 단위 3단계의 국가 장기 개발 프로젝트임.
- 기존 정책들이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수립, 진행되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과 달리, 비전 2050은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역개발을 포함한 다방면의 정책 과제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모든 정부 부처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몽골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몽골인의 삶의 질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전 2050 수립에 참여한 몽골 경제학자 도르지(Dorj)에 따르면, 과거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장기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향의 중간점검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몽골의 비전 2050 역시 그와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비전 2050 장기 개발정책의 9개 주요 목표

| No. | 목표  | 세부 내용  | No. | 목표   | 세부 내용   |
|-----|---|--|-----|--|---|
| 1   | 문화강국<br>       |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강한 민족이 될 것<br>(세부 목표 4개)                                      | 6   | 녹색 개발<br>         | 녹색 개발을 통해 존중해(중요시해) 자<br>연환경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br>(세부 목표 28개) |
| 2   | 인간 개발<br>      | 몽골 인간개발지수를 0.9에 도달<br>하고 행복지수로 세계 상위 10개국<br>에 포함될 것<br>(세부 목표 57개)        | 7   | 안전한 사회<br>        | 몽골 민족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내외<br>환경을 구축<br>(세부 목표 9개)                |
| 3   | 삶의 질 및 중산층<br> |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으로 구성된<br>중산층의 비율을 2050년에는 전체<br>국민의 80%에 도달시킬 것(세부<br>목표 17개)  | 8   | 지역중심개발<br>        | 안정적인 인구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몽<br>골내 지역 개발<br>(세부 목표 9개)             |
| 4   | 경제발전<br>       | GDP 6.1배 증가, 1인당 GDP 1만<br>5000미국 달러 도달, 세계 선진국<br>기준 도달할 것<br>(세부 목표 11개) | 9   | 울란바토르 및 위성 도시<br> | 살기 좋고 친환경적이며 국민 중심의 도<br>시 개발<br>(세부 목표 2개)                 |
| 5   | 바른 정부<br>      | 안전한 정부, 인권 보호 및 공평한<br>체제 가중, 뇌물 없는 국가<br>(세부 목표 6개)                       |     |  |   |

출처: KOTRA, 몽골정보통신기술국

##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적 노력 진행 중

-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몽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진행 중임. 특히 2013년 제정한 신 투자법은 그동안 존재하던 국내·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고 외국인의 몽골 시장 진출에 대한 면허 폐지, 투자환경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 투자법 제정을 통해 몽골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며, 일부 전략산업 분야에서만 외국 기업 투자 시 몽골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규제가 완화됨.
-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조세·비조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음. 조세 혜택으로는 부가세 및 관세 면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면세 혜택 등이 있으며, 비조세 혜택에는 토지 사용 혜택 제공, 혁신사업 자금 보증 등의 서비스가 시행 중임.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2020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20)에서 몽골은 기업환경평가지수 67.8점으로 대상국 190개 중 81위를 차지해 중위권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전자정부 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

- 몽골 정보통신기술국은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는 통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E-Mongoli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021년 2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의 181개 서비스를 E-mongolia 통합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윤-에르덴 총리는 2021년 내에 이를 592개의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몽골 정부가 제공하는 약 1만 1,200개의 모든 정부 서비스를 통합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러한 몽골의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는 몽골 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와도 관련이 있음. 전자정부 서비스가 체계를 갖추면 현재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 시 발생하는 관료주의에 의한 행정 처리 시간 지연이나 부패와 연관된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더욱 개선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치안정

### 2020년 6월 총선 몽골인민당 압승으로 정책 연속성 기대

- 2020년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은 여당 몽골인민당이 전체 76개 의석 중 6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2016년 총선에 이어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2021년 1월, 2017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던 후렐수흐 우흐나 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에 대해 가혹한 처우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이 인민당의 정치적 우세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오윤-에르덴 신임 총리 역시 후렐수흐 전 총리가 신임하던 인물로, 인민당의 정책 연속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윤-에르덴 총리는 후렐수흐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경제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목표로 설정한 6%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민당에 대한 주된 비판의 원인인 부정부패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등에 대해 금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몽골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지만 결함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몽골은 EIU가 발표한 2020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점 6.48점으로 167개국 중 61위를 차지함. 이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수준으로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우수한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가됨. 몽골 민주주의의 장점은 선거문화와 제도가 투명하다는 것으로, 2020년 6월 총선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임. 그러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패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음.

## 사회안정

### 때때로 시위가 발생하나 대부분 평화적으로 마무리

- 때때로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 하에 광물자원과 관련된 부정부패나 소득 양극화에 대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평화 시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러한 시위 외에 몽골 내부에서 테러 등의 과격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중국 내 내몽골 자치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몽골어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와, 2021년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후렐수흐 전 총리의 퇴임을 촉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시위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발생했으나, 두 시위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음.

## 사회안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몽골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몽골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7개 중 ESG 2·3등급(개도국 중 1등급 전무) 평가국가는 42개국, 5등급 국가는 20개국으로, 몽골은 하위권으로 볼 수 있음.  
\*Moody's의 ESG 등급은 1단계(긍정적)~5단계(매우 부정적)로 나누어져 있음. 2021년 1월 Moody's 발표자료 기준 몽골과 함께 4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이집트, 인도 등이 있음. Moody's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ESG 4등급 이하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으로 평가되어 ESG 요소들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몽골은 폐기물 발생,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석탄과 탄화수소 관련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짐. 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탈산림화, 사막화가 진행되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몽골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소득불평등이 청년층 인구 증가와 정부의 사회안전망 마련 등으로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비전 2050' 등 전반적 사회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전담 정책 집행 기관의 부재와 부정부패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에 의해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이와 함께 거액의 외채부담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압력으로 환경이나 사회 위험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해 몽골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

-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인접국인 동시에 몽골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들임. 중국은 몽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몽골 경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임. 중국 측에서도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몽골과의 무역·교통 경로를 확장하고 FTA를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향후에도 중국은 계속 몽골의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남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러시아 역시 몽골의 주요 에너지 수입 상대국이자 중국에 이은 몽골의 2대 수입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관계

### 국제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 병행

- 한편으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UN에서의 교류와 활동을 늘리는 등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몽골은 미국과 2014년 '미국·몽골 안보 관계 공동성명'을 체결해 군사·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2015년 일본과 최초로 EPA(경제협력협정)를 체결하고 2020년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회원국이 되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 중임.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높은 대외차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채무 재조정 진행 중

- 2020년 9월 30일 기준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 잔액은 1,576.6백만 달러(단기 34.1백만 달러, 중장기 1,542.5백만 달러) 중 6.6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연체비율은 0.4%로 낮은 편임.
- 한편 몽골은 1991년부터 총 5차례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의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부족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국제기구와 여러 채권국들로부터 외화를 조달해 2020년 22억 4,100만 달러의 외채원리금을 상환했고, 2021~2024년에도 총 140억 달러 상당의 외채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등 외채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7등급 (2020.06) | 6등급 (2019.06) |
| Moody's | B3 (2021.03)  | B3 (2020.05)  |
| Fitch   | B (2019.07)   | B (2018.07)   |

### OECD,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평가등급 하향

- OECD는 몽골이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 중이며, 외채부담이 과중하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와 석탄 등 원자재의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이러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OECD는 부정부패와 소득불평등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6월 몽골의 국별위험도 평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함.



- 몽골은 2016년 국가부도의 위기에 놓였으나,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며 2019년까지 5~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외환보유액을 2016년 대비 2배 확충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여옴.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련된 무역, 투자 급감으로 인해 -5.3%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는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광물 수요 증가로 6%대 초반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나, 서비스·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폭도 커질 것으로 보임. IMF 체제 아래에서 외환보유액을 늘려왔으나, 외채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2020년 48%에 달하는 등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수준임.
- 2020년 6월 총선에서 인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 연속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비전 2050 장기 국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